

# 학 · 습 · 지 · 도

루트교육연구소 www.keytostudy.com

## 부모의 간섭과 자녀의 학습동기

성적이 계속 곤두박질친다는 중2 남학생.

“엄마 앞에서 하지 않으면 공부했다는 걸 믿질 않아요. 언제, 얼마만큼 했느냐며 막 따지는 거예요. 도대체 날 어떻게 보고... 공부할 맛이 싹 없어졌어요.”

아이는 간섭이 싫어서 엄마 앞에서는 오락만 하게 되고, 가족이 잠든 시간에만 공부를 한다는 것이다.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간섭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기대가 큰 시부모님과 남편이 문제란다. “아이 단속 제대로 하라며,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얼마나 닥달을 하시는지...”라며 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이를 자연히 닥달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의 실패는 곧 엄마 자신의 실패라는 생각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과 방법, 계획표까지 사사건건 간섭하는 감시자가 돼버렸다. 공부는 당연히 아이의 몫인데 부모에게 뺏긴 모양새다.

부모는 상담을 통해 아이가 부모의 기대만큼 못해내는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컸고, 몹시 긴장하고 불안해했으며, 부모에 대한 반감 때문에 공부 의욕도 제대로 펼칠 수 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아이도 부모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회피했을 뿐 대화로 풀어가려는 노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의사소통 과정이 아이의 새로운 공부를 위한 동기가 되었다.

아이가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도우려면 시급하게 고려되고 보호되어야 할 것이 아이 상태다. 부모는 아이에 대한 기대를 잠시 접어두고 간섭을 멈춰야 한다. 대신 담담한 마음으로 아이를 관찰해보라.

간섭없이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아이의 자발성을 발견하라. 자기 책상을 정리하는 작은 행동에서 공부하려는 자발적인 마음이 싹트는 걸 반가워하라.

그리고 지지해주고 다독겨줘라. 아이가 힘이 날 것이다. 또 자녀는 간섭만 하는 부모에게 “공부는 제 거예요”라고 분명히 자신의 상태를 알려라. 공부시간 배치는 자신에게 맞추어 주체인 자신이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30분이라도 찾아 시작해보고 늘려가라. 공부 재미를 살리기 위해 흥미있는 과목부터 배치하라. 공부에 대한 마음이 살아날 것이다.

## 학습 장애아의 원인과 대책

다른 모든 질환처럼 학습장애도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습장애 원인은 뇌의 미세한 손상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돼 있다. 삼성서울병원 학습장애클리닉 김승태 소장은 임신중 흡연이나 음주, 약물 남용 또는 태어나는 순간 탯줄이 목에 감기는 경미한 사고로 뇌 일부가 신경학적

검사로 발견할 수 없을 만큼 미세한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다른 아이들보다 뇌가 늦게 성숙하는 경우나 유전적 이유로 학습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빈곤이나 부모 이혼 같은 정신적 충격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학습장애 유형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분류한다. 서울대병원 심리학습평가실 신민섭 교수는 병원을 찾은 학습장애아들을 크게 「전형적 특수학습장애」 「주의력결핍 과행동성 학습장애」 「비학습장애패턴」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수학습장애란 눈이나 귀를 통해 투입된 정보가 뇌를 거쳐 출력돼 나오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형적인, 가장 좁은 의미의 학습장애다. 주의력결핍 과행동성 장애는 주의가 산만해서 조금도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는 정신과 질환 때문에 학습장애를 빚는 경우다.

그러나 특수학습장애가 원인이 돼 2차적으로 주의력결핍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수학습장애와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고 신교수는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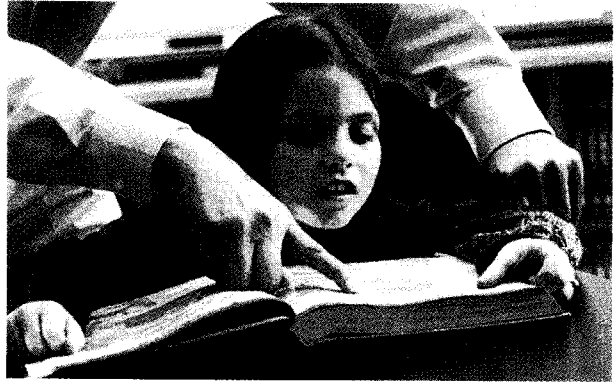
비학습장애패턴은 우울이나 강박, 불안 같은 정서적 문제나 가정불화 같은 환경 문제가 원

인이 돼 학습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전체 학습장애 아동의 3분의1~4분의1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학습 부진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신교수는 「비학습장애패턴은 적절한 심리치료로 얼마든 치료할 수 있으며, 주의력결핍 과행동성 학습장애도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로 효과를 보는 수가 있다」며 「빨리 발견해 적절한 치료 대책을 세워야 영구적 학습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교수는 그러나 「특수학습장애아동은 별 다른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학습장애에 따르는 좌절이나 불안-공포, 우울증 예방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학습장애로 진단된 경우에도 증상 정도



에 따라 대책을 달리해야 한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소아과 고창준 교수는 「증상이 심한 아이를 정상 아동들 틈에 섞어 놓아도 안 되지만, 증상이 경미한 아이들을 정상 아동들과 격리시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고교수는 「모차르트나 아인슈타인, 록펠러 같은 사람들도 학습장애아였다」며 「증상이 경미한 경우엔 정서적으로 위축되지 않게 잘 감싸주면서 숨겨진 다른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 주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